한화 채드벨 상대 4회말 결승 투런포

‘홈런 가뭄’ LG에 단비 뿌린 채은성

8G 무홈런 팀에 시원한 한방 선물
‘조셉 부상이탈’로 장타력 고민 LG
김현수 뒷받침할 해결사 역할 기대



LG 채은성(오른쪽)이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홈경기 4회 2사 1루 때 좌월 결승 2점 홈런을 터트린 뒤 김현수(왼쪽)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LG 트윈스 채은성이 팀에 꼭 필요한 한방을 잠실구장 밤하늘에 수놓았다. 8경기 동안 홈런 가뭄에 시달리던 LG에는 단비와도 같은 2점포였다.

채은성은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해 4회말 선제 결승 좌월 2점홈런을 터트렸다. 0-0의 균형을 깨고 팀을 6-1 승리로 인도하는 순도 만점의 한방이었다. LG 선발투수 케이시 켈리도 잠실 6연패의 사슬을 끊고 모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채은성은 2회 무사 1루서 맞이한 첫 타석에선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다. 그러나 4회 2번째 타석에선 역투하던 한화 선발 채드 벨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었다. 1사 1·2루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2루주자 이형종이 3루 도루에 실패하면서 자칫 김이 빠질 뻔한 흐름이었기에 더 짜릿했다.

채은성은 2사 1루, 볼카운트 2B-1S서 벨의 4구째 체인지업(시속 136km)이 한복판으로 높게 들어오자 힘차게 배트를 돌렸다. 타구는 순식간에 외야 좌측스탠드로 꽂혔다. 타구를 뒤쫓던 한화 좌익수 양성우도 곧 멈춰서야 했다. 비거리는 115m.

팀의 장타를 담당하는 외국인타자 토미 조셉이 허리 통증으로 6월 28일 올 시즌 2번째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류중일 LG 감독은 “장타가 아쉽다”며 근심스러운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게다가 6월 21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에서 이형종과 오지환이 아치 한 개씩을 그린 뒤로는 8경기 동안 홈런포가 차갑게 식은 상태였다. 채은성의 이날 홈런이 남다른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채은성에게도 값졌다. 지난해 25홈런을 친 기세가 올해는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꼬박꼬박 타율은 3할을 찍었다. 그러나 홈런은 4개에 불과했다. 스스로도 홈런 갈증에 목 말라하던 시점에서 6월 1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이후 11경기 만에 시즌 5호포를 쏘아 올렸다. 이제부터라도 힘을 낸다면 충분히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노려볼 만하다.

채은성은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뒤 “그동안 팀에 도움이 못된 것 같아 미안했는데 다행이다”며 “실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운이 좋았다. (벨의) 직구가 워낙 힘 있고 좋아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는데, 체인지업 타이밍에 잘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좋았던 때의 타이밍을 찾는 데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실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3일 게임 브리핑

서준원 2.1이닝 8실점 ‘최악투’ 봉와직염 키움 이승호 1군 말소

●서준원, 타구 강타·한 경기 최다 실점

롯데 루키 서준원이 인천 SK전에 선발 등판해 2.1이닝 8안타(2홈런) 1볼넷 8실점을 기록했다. 데뷔 후 개인 최다 실점. 부상도 입었다. 1회 무사 1루에서 한동민의 타구를 잡으려다 왼손을 강타당해 고통을 호소했다. 투구를 이어갔지만, 이재원에게 3점포를 얻어맞는 등 1회에만 5안타 2사사구로 6점을 내줬다. 3회에도 제이미 로맥에게 홈런을 맞아 2점을 더 허용했다. 롯데 측은 “서준원이 강판한 후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부상 투혼’ 이승호, 결국 수술로 1군 말소

키움 좌완투수 이승호가 ‘봉와직염’ 치료를 위해 다시 한 번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고척돔에서 열린 두산전을 앞두고 “이승호를 1군에서 제외했다. 다친 부위의 살이 잘 안 붙더라. 운동을 계속하니 나아질 수가 없었다. 봉합수술을 받을 예정이라 전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호는 올 시즌 15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4.66으로 활약하며 키움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아왔다. 2일 두산전에서는 봉와직염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6이닝 3실점 호투로 투혼을 발휘해 팀 승리를 이끌었다.

●루키 김기훈 선발로테이션 잔류 합격

KIA 박흥식 감독대행은 광주 NC전에 앞서 신인 좌완 김기훈에 대해 “1군에 복귀 후 2번의 선발등판에서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계속 선발 기회를 주겠다”며 “아직 볼넷이 많지만 공의 회전의 좋은 투수다. 구속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팀의 미래를 위해 꼭 성장해야 할 투수다”고 밝혔다. 김기훈은 복귀 후 2번째 등판이던 2일 NC전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는 등 최근 2경기에서 호투했다.

●염경엽 “정의윤 대타 기용, 시간 주는 것”

SK 정의윤이 롯데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3연속경기 선발 출장하지 못했다. 정의윤은 2일까지 64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7, 7홈런, 37타점을 기록했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855로 팀 내 3위에 오르는 등 중심타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이지만 공교롭게도 6월 29일 대구 삼성전에서 수비 미스를 범한 뒤부터 벤치다. 하지만 염경엽 감독은 “밸런스가 조금 흔들렸다.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수비 미스의 지분이 크지 않음을 밝혔다.

●김대현, 5일 광주 KIA전 선발등판

LG 류중일 감독은 “5일 광주 KIA전 선발투수로는 김대현이 등판한다”고 밝혔다. 왼쪽 골반 통증으로 전열을 이탈한 류제국의 대체 선발이다. 류 감독은 “최근 김대현이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 (투수)코치진에서 ‘대현이가 낫겠다’고 (건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고교수 다르고 지역편차도 큰데…1차지명, 이대로 괜찮은가?



이경호의 해피존



KBO의 신인 1차지명은 일부 구단의 이기주의가 숨어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구단별 지명 대상 고등학교가 숫자, 지역, 전력 차이 등을 반영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지 오래다. 지난해 7월 열린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스포츠동아DB

KBO리그 신인지명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1차지명과 전면드래프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각각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전면드래프트 재 시행은 더 넓은 범위에서 논쟁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1차지명만 주제로 삼아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

야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 비교적 많은 선수가 한 경기에 출전한다. 신인 선수가 스타팅멤버로 성장하는데 평균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신인선발은 전력구성에서 매우 핵심적이다. 특히 전력을 보강하는데 가장 저비용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만큼 신인선발은 리그 전력평준화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현 1차지명 제도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물론 각 구단별로 단 한명을 뽑는 방법을 확대 해석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리그 역사를 살펴보면 한 명의 선수가 팀 역사를 수 없이 바꿔왔다. 육성이 더 강조되는 현 흐름에 비추면 신인선발 기회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1차지명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각 구단별로 대상 고등학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서울 3개 팀은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1·2·3순위로 돌아가며 1차지명 선수를 뽑는다.

KT 위즈는 수원, 경기권 11개 학교, SK 와이번스는 인천, 경기권 9개 고등학교다.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경북, 강원도 영동 10개교,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6개 고등학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도 영서 9개 학교, KIA 타이거즈는 광주, 전남, 전북 8개 고교가 대상이다. NC 다이노스는 경남, 울산, 전북 군산, 전주 7개 고등학교에서 선발한다.

지명대상 고교 숫자부터 다르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만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KBO리그는 분명 도시연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3개팀, 롯데를 제외하면 모두 타 지역까지 연고지가 확대된다. NC는 연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전북에 권리를 갖고 있다. 한화와 삼성은 강원도를 영서와 영동으로 나눴다. 큰 모순이다.

세부 학교명을 들여다보면 불공정함이 도드라진다. 고교야구 강팀이 모여 있는 서울 3개 팀은 특별한 수혜를 수 년 동안 누리고 있다. 같은 고교 팀이라고 해도 부원이 60명이 넘는 팀도 있고 20명 밖에 되지 않는 신생팀이 존재하지만 광역별로 나누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서울 3팀에게 각각 고교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가장 불공정한 점이다. 6, 7개 팀씩 지명대상고교를 나눴다면 1차지명자에 이은 랭킹 2위 선수가 2차지명 후보자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기형적인 제도 탓에 서울 3팀은 매년 야구명문이 모여 있는 서울에서 랭킹 1~3위 선수를 골고루 나눠 영입하고 있다.

KBO 1차지명은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지만 일부 구단의 이기주의를 깨트리지 못하며 불공정한 게임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숙제다.

스포츠부 차장

기립박수 받은 고효준 “나는 아직도 아쉽다”

〈롯데〉

4월 7.47 ERA서 6월 2점대 호투
안정적 피칭에 감독도 팬들도 극찬



롯데 고효준

“고효준이 가장 안정적이다.”

롯데 자이언츠 양상문 감독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6월 1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57(14이닝 4자책점)로 안정감을 보여준 고효준(36)에 대한 칭찬이었다.

고효준은 2002년 KBO 신인지명회의 2차 1라운드(전체 6번)로 롯데의 지명을 받고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를 거쳐 지난해부터 친정팀으로 돌아와 불꽃을 태우고 있다. 여전히 포심패스트볼(포심) 평균구속 145km를 유지하며 상대 타자들의 힘이 떨어진 경기 후반 필승계투요원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코칭스태프는 물론 팬들의 믿음도 크다. 지난 달 30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선 아웃카운트 2개를 깔끔하게 처리한 뒤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됐다. 팬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답할 정도로 여유도 생겼다. 프로 입단 18년째를 보내고 있는 고효준에게 팬들의 응원은 엄청난 활력소다.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다. 그 응원에 보답하는 게 선수의 몫이다. 응원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선수들은 큰 힘을 낸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초반부터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4월까지 평균자책점은 7.47에 달했다. 제구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다행히 5월부터 23.2이닝 9자책점(평균자책점 3.42)으로 순항하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4월까지 18경기에서 10개에 달했던 볼넷은 5, 6월 두 달간 28경기에서 11개로 감소했고, 6월 피안타율은 0.170에 불과했다. 하위권에 처진 어려운 팀 상황에 묵묵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고효준은 “꾸준히 보강운동을 했다. 웨이트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며 보완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족을 모르는 성격은 고효준의 ‘장수비결’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장 안정적”이라는 양 감독의 칭찬에도 손사래를 친다. “(지금 구위가)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고효준은 “더 편안하게 마운드에서 내공을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